

■ 건설노조 파업...광주 주요 건설현장 가 보니

“멈춘 공사장 장마에 침수될라”

굴삭기 굉음 사라지고 적막감만

건설기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본덕~임곡간 국도 49호선 도로 개설 2공구 평립교 공사현장. 덤프트럭의 엔진소리도. 굴삭기의 굉음도 들리지 않았다. 훑던지 한점 날리지 않아 적막감마자. 감돌았다. 폭 20m의 비포장 도로엔 그레이더(grader·평바닥)를 꺾어 고르는 토목용 기계(1대와 로드 롤러(road roller·도로의 면을 고르거나 다지는 중장비) 2대, 굴삭기 1대, 15t 덤프트럭 1대가 멈춰 서 있었다.

덤프트럭·불도저를 운전하는 기사 2명은 총파업을 의식한 듯 자신의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또 평립교 밑에선 작업부 13명이 교대(橋臺·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 보호 블록공사를 하고 있었다. 기계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인력작업이 가능한 일을 우선하고 있었다.

당초 이곳은 도로 훑쓰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건설기계노조가 이날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모든 게 멈춰섰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장마철에 대비, 공정률(이날 현재 59%)을 예정보다 10% 가량 앞당겨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공기 걱정은 조금 덜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파업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레미콘(2~3일분 확보)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해져 공기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이 공사장에서 필요한 덤프트럭만 하루 평균 100여대. 시공사 측은 자체보유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총동원할 계획이지만 소요량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덤프

트럭 운전자는 “운행을 하고 싶지만 총파업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오후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지구 J아파트 건설현장. 작업 인부 100명이 작업장을 지키고 있었다. 한창 들락거려야 할 덤프트럭과 굴삭기는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층수 쌓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건설기계노조의 총파업 돌입 후 일부 작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인

부들은 아파트 공사 대신 지하주차장 공사 등 주변 작업을 대신 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당분간은 미리 준비한 자재 물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는 등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마기간이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하에 물이 고여 피해를 입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ps@kwangju.co.kr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이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운송을 경찰이 호송한데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운송 방해 조합원 사법처리 잇따라

“화물연대에 민·형사 책임 묻겠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운송을 방해한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운행중이던 화물차량에 물을 던져 차량 유리를 파손한 화물연대 조합원 박모(41)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경찰도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을 흑색하고 차량을 파손한 화물연대 전남지부 여수지회 간부 양모(31)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16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이 비조합원 운송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카레이어(자동차 운송용) 차량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도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권모(36)씨 등 조합원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으며, 조합원들은 도로 4개 차선과 인도를 점거하고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권씨 등이 석방된 이날 오후 5시께 자진 해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장했다.

협의회는 화물연대에 운송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운송료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운송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이날 성명은 전남 지역에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산단 입주 석유화학 업체 31곳을 중심으로 발표됐으며,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60~70%인 공장 가동률이 조만간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18일이 고비다”라고 설명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협의회는 화물연대에 운송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운송료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운송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를 보냈다.

이날 성명은 전남 지역에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산단 입주 석유화학 업체 31곳을 중심으로 발표됐으며,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60~70%인 공장 가동률이 조만간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18일이 고비다”라고 설명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무안 — 삼양(백두산)

판매한 장물아비 이모(50)씨와 폴리조직의 조지원 김모(31)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광주지검 마야조직범죄수사부(송상현부장검사)는 16일 전국을 돌며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기름을 흘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권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전주와 천안·충풍령 인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의 기름을 빼내기 위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와 호스를 설치한 뒤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 등 6만2천200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흘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 — 흥류(제15회)

무안 — 빅뱅 7

외국산 쇠고기 등 국산 둔갑

3억대 ‘비양심 유통’

광주 30대 구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6일 수입산 쇠고기와 폐고기와 수익원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순전 등지의 식당에 유통시킨 정모(32)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광주시 북구에 식육점을 차려놓고 순천시의 한 식당에 국산과 수입산 데지고기와 쇠고기와 수익원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으며, 혼합가공하지 않고 일련다가 해동한 채로 속여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원산지 단속 결과 올해 들어 허위 표시 129건, 미표시 150건을 적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먹거리 피해자 공개모집 합니다”

‘가짜 한우’ 판매 광주 음식점에 보상 요구키로

광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적발된 광주시 서구 H대형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나섰다.

광주 YMCA와 광주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의 H음식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요구 방법을 몰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며 “이들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피해자 공개모집에 대해 “H음식점이 취득한 부당 이득을 어떻게 반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거리에

“여권은 돌려주세요” 재미교포 호소

○…장애인 아동 입양을 주선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재미교포가 속주에서 여권이 들어있는 지갑을 도둑맞아 밤을 동등.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애우 사랑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용길(80·LA 오렌지 카운티)씨는 지난 14일 오후 속주인 광주시 동구 충장동 B모텔 방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가 이를 도둑맞았다는 것.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속주 인근 다방에 다녀와서 보니 여권과 일화 5만엔, 스케줄 표지가 담긴 지갑이 없어졌다며 진술.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자렸고 전국체전 미국선수단 단장도 역임했던 김씨는 “광주의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만난 뒤 지난 15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여권이 없어져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권이 없어져라도 돌아달라”고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송유관 뚫어 기름 흘친 일당 검거

고유가 시대를 틀 타 전국에 매설된 정유사의 송유관에서 기름 수만ℓ를 흘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마야조직범죄수사부(송상현부장검사)는 16일 전국을 돌며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뒤 기름을 흘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권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전주와 천안·충풍령 인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의 기름을 빼내기 위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와 호스를 설치한 뒤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 등 6만2천200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흘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